

AI/로보틱스

삼성의 사업화 시동, 국내 대기업 로봇 경쟁 본격화

- 삼성전자, 로봇 사업 총괄을 위한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 신설
- 서울 우면동 R&D 캠퍼스는 연구개발 거점, 구미 로봇 데이터팩토리는 생산/실증 거점
- 삼성전자, LG,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의 로봇 사업화 경쟁 가속

로봇 사업 총괄을 위한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 출범

삼성전자는 7월 21일 대표이사 직속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하고 전사에 분산돼 있던 로봇 전략·연구개발·사업화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사업 전략을 담당했던 이동건 부사장을 로보틱스전략팀장으로 선임하였다.

로봇 자율제어 분야와 로봇 핸드·매니플레이션 분야 교수를 영입하며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도 강화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 미래로봇추진단 중심의 선행기술 개발을 넘어, 삼성전자가 로봇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직접 사업화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자체 제조 현장에서 시작되는 휴머노이드 사업화

삼성전자는 산업용 로봇을 우선 개발하고, 자체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홈·리테일 시장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자체 사업장 실증 → 산업용 B2B → 소비자용 B2C'로 이어지는 단계적 사업화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와 로봇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제 작업 데이터의 축적과 AI 학습, 현장 검증 및 제품 개선이 반복되는 개발 인프라를 확보할 전망이다.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다양한 제조 거점을 보유했다는 점은 외부 판매에 앞서 로봇의 성능과 경제성을 내부에서 반복 검증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구조적 강점이다.

국내 대기업 로봇 경쟁, 기술 확보에서 사업화·현장 검증으로

올해 있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로봇 전담 조직 신설,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조직 재편은 국내 대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략이 연구개발 중심에서 현장 검증과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분야의 생산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 그룹은 자체 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를 실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범용성과 생산성을 고도화한다는 공통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관련 핵심 이벤트는 삼성의 휴머노이드 공개, 구미 사업장 로봇 양산 체계 및 데이터팩토리 구축, 로봇 완제품 제조 현장 투입이 될 것이다. 관련 로드맵이 구체화될수록 대기업형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한 부품사의 매출 성장 가능성이 부각될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로봇 섹터의 투자심리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가시성에 따른 기업별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전자, 로봇 사업을 총괄하는 RX 사업추진실 신설

삼성전자는 7/21 대표이사 직속 로봇 사업 전담 조직인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로봇 부문을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전사에 분산돼 있던 로봇 관련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핵심 기술 개발, 사업화까지 총괄할 계획이다.

RX사업추진실은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부문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산하 로보틱스전략팀장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로봇사업 전략을 총괄했던 이동건 부사장이 맡으며, 지능형 로봇 시스템·자율로봇 제어 분야의 석학인 서울대의 김현진 교수와 로봇 손 분야의 석학인 아주대의 김의겸 교수도 합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추가 영입해 로봇 사업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면동 서울 R&D 캠퍼스를 로봇 관련 인력들이 협업할 수 있는 연구개발 중심지로 삼고, 구미 사업장에 구축되는 데이터 팩토리와의 협업을 통해 로봇 지능화 및 제어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로보틱스 기술을 갖춘 미국·중국·일본에 로봇 연구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R&D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기술 및 생태계를 활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표 1. 삼성전자 RX사업추진실 신설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취지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 핵심 축으로 육성 본격화
목적	- 전사 로봇 역량·기술력 결집 - 로봇 관련 통합 추진체계 및 사업기회 본격 창출
거점	- 우면동 서울 R&D캠퍼스가 메인 거점 - 구미 사업장에 데이터 팩토리와의 협업을 통해 로봇 지능화 및 제어 고도화 추진 예정 - 미국·중국·일본에 글로벌 연구거점 설치, 현지 기술 및 생태계 활용, 전문 인력 확보
인력	- 보스턴다이나믹스 출신 이동건 기획팀 부사장을 로보틱스 전략팀장으로 임명 - 로봇 자율제어 분야 김현진 서울대 교수·로봇 손 분야 김의겸 아주대 교수 합류 -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 추가 영입 예정
계획	- 대표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 기대 - 시장 변화에 민첩 대응 및 사업 기회 창출

자료: 언론보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체 사업장 실증 → B2B → B2C, 3단계 로봇 사업 확장 로드맵

삼성전자의 로드맵은 초기에 휴머노이드를 제조 현장에 투입해 실제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기능 다목적 휴머노이드'로 발전시킨 뒤, 산업용 휴머노이드(B2B)에서 소비자용 휴머노이드(B2C)로 순차 확장하는 3단계 구조다. 제조 현장은 공정과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구조화돼 있고 이송·조립·검사 등 반복 작업 비중이 높아, 비정형 작업이 많은 가정 환경에 비해 초기 로봇 적용의 난이도가 낮다는 점이 이 순서의 배경이다.

특히 제조 현장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로봇 판매에 앞서 실제 운용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휴머노이드를 위한 피지컬 AI 개발에는 실제 로봇 운용 과정에서 확보되는 데이터의 가치가 특히 높다. 삼성그룹은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다양한 생산 거점과 공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고객 확보에 앞서 자체 사업장을 대규모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조적 강점을 지닌다. 이는 로봇 개발을 위해 데이터 수집→AI 모델 학습→현장 검증→제품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7월 3일 삼성전자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와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 거점으로 삼성 제조 경쟁력을 상징해온 구미를 AI·로봇 기반 첨단 제조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는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와 맞물려 있다.

테슬라가 오펜티머스의 외부 판매에 앞서 자사 기가팩토리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삼성전자 역시 자체 제조 현장에서 시각·촉각·행동 데이터를 확보해 로봇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미 사업장에 구축될 데이터 팩토리가 이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계열사들도 휴머노이드 개발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울산에 16조원을 투자하는 삼성 SDI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전고체 배터리 최초 양산을 목표하고, 거제에 1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 중공업은 3X 전환(디지털 전환, AI 전환, 로봇 전환)을 통해 자율형 조선소를 구축을 목표로해 로봇의 또다른 실증 베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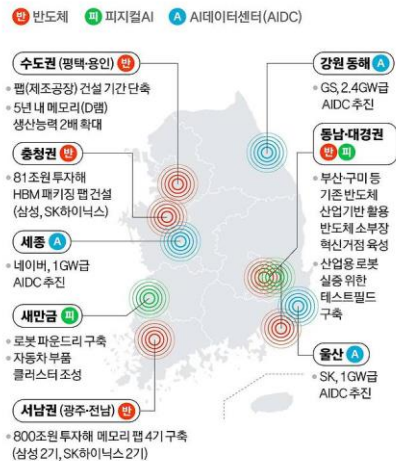
내부 실증을 마친 이후에는 기업과 가정에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자사 제조 현장을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초기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범용성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정·서비스 시장까지 포괄하는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표 2. 삼성그룹 영남권 거점별 투자 계획 - 삼성전자·삼성SDS 구미에 19조원 투자

지역	투자 주체	금액	주요 투자 내용
구미	삼성전자·삼성SDS	19조원	•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 • 스마트폰 글로벌 제조의 혁신 허브 • 신규 AI 데이터센터
울산	삼성SDI	16조원	•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마더 팩토리(휴머노이드용 전고체 배터리 최초 생산 목표) •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거제	삼성중공업	10조원	• 최첨단 고부가가치선 • 해양 인프라 건조 기지 • 3X 전환(디지털 전환, AI 전환, 로봇 전환)을 통한 자율형 조선소 구축 목표
부산	삼성전기	15조원	• 차세대 IT 기기 및 전장용 MLCC 생산 •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반 생산

자료: 삼성전자,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별 추진 내용



자료: 언론 보도

그림 2. 디지털 AI를 위한 삼성 그룹 영남권 투자 계획



자료: 삼성전자,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로봇 기업 지분 투자에서 본격 사업화 단계로 진입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시작한 뒤, 2024년 말 약 2,675억원을 추가 투자해 지분율을 14.7%에서 3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회사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도 함께 신설한 바 있다.

이번 RX사업추진실 출범을 통해 삼성전자는 AI 로봇 분야 본격 사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B2B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우선 집중할 예정으로,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의 양팔로봇·자율이동로봇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RX 사업 추진실 출범을 계기로 핵심 분야 전문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며 기술 내재화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내부 역량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로봇 분야 M&A와 스타트업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휴머노이드의 ① **로봇 손**과 ② **로봇 정밀제어** 기술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미 미래로봇추진단 하드웨어 그룹 산하에 로봇 손 전담 조직인 '핸드랩'을 신설하고, 휴머노이드용 손 구동 시스템과 정밀 제어 기술을 개발해왔다. 이번 로봇 손 분야 전문가인 김의겸 아주대 교수가 RX사업추진실에 합류하면서 로봇조작개발팀에서 지능형 조작 기술 전반의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21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촉각 센서와 구동기를 내장한 인간형 로봇 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핀셋으로 두께 0.9mm의 소형 칩을 집어 옮기는 데 성공했다. 최근에도 3지 로봇 그리퍼와 촉각 센서 등 로봇 손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며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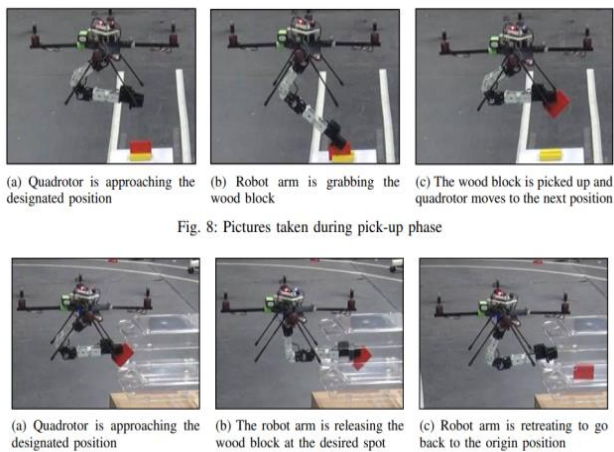
지능형 로봇 시스템·로봇 제어 분야의 김현진 서울대 교수도 RX사업추진실에 합류하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두뇌' 분야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진 교수는 서울대 항공우주 공학과에서 20여년간 자율비행과 AI 로보틱스를 연구해온 국내 최고 권위자로, 2013년 드론에 결합된 로봇팔을 조작해 물체를 옮기는 고난도의 제어 기술을 제시했다.

표 3. 삼성전자 로봇 사업 관련 내용

시기	주요 내용
2019.1	CES 2019에서 차세대 AI 프로젝트로 '삼성봇' 공개.
2021.2	DX부문 산하에 '로봇사업화 TF' 발족
2021.12	로봇사업화 TF를 상설 조직인 '로봇사업팀'으로 격상
2023.1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약 590억원 투자, 지분 약 10.2% 확보
2023.3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추가 278억원 투자해 총 투자금액 868억원, 지분율 14.7%로 확대.
2024.5	기존 DX 부문 로봇사업팀을 재편, R&D 인력을 CTO 산하 조직 및 삼성리서치 로봇 연구 조직과 연계
2024.12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 신설, 오준호 KAIST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선임. 레인보우로보틱스 콜옵션 행사 결정. 지분율을 14.7%에서 35.0%로 확대해 최대주주 지위 확보
2025.3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절차 완료 및 삼성전자 연결 자회사 편입
2025.4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연구원 50여명이 투입된 S&R 휴머노이드팀 공동 연구개발 착수
2026.3	미래로봇추진단 산하에 '핸드랩'을 신설.
2026.4	1분기 컨콜에서 제조용 로봇을 우선 개발한 뒤 홈·리테일로 확장하는 사업 방향 제시
2026.7	대표이사 직속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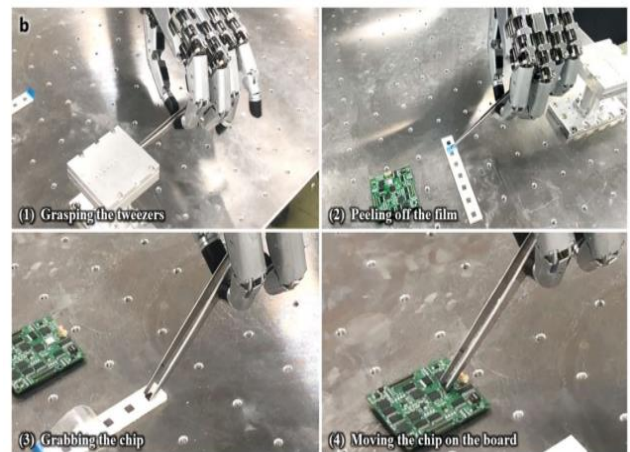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김현진 교수 논문 - 드론에 장착된 로봇팔로 물체 운반



자료: 언론보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김의겸 교수 논문- 초소형 칩 조작 기술을 가진 로봇 핸드



자료: 언론보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시사점: 국내 대기업 내 로봇 조직 격상과 사업 추진력 강화

이번 RX사업추진실 출범은 삼성전자의 로봇 전략이 지분 투자와 선행기술 확보를 넘어, 그룹 내부 역량을 결집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대표이사와 CEO 직속 로봇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현대차그룹도 사업기획 조직과 로보틱스 연구개발 체계를 재편하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로봇 사업 추진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각각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보스턴다이나믹스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완제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업화 가시성이 높다. 양사는 자사 제조·물류 현장을 초기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실제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지능과 범용성을 고도화한 뒤 외부 고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가시화로 국내 주요 대기업 간 휴머노이드 경쟁 구도도 한층 강화됐으며, 정부 주도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민관 펀드의 자금 지원이 더해지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로봇 사업 확대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감속기·액추에이터·모터·센서 등 핵심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공급망 진입 여부와 양산 납품 레퍼런스에 따라 기업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 내재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봇 손, 정밀제어, 구동계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 투자나 M&A 검토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은 5월 중순 이후 실적 부진과 코스닥 시장 약세가 겹치며 고점 대비 약 50%의 큰 폭의 조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RX사업추진실 출범은 단기적으로 로봇 섹터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7월 21일 관련 뉴스 발표 이후 이틀간 로보틱스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며 주요 종목의 주가가 반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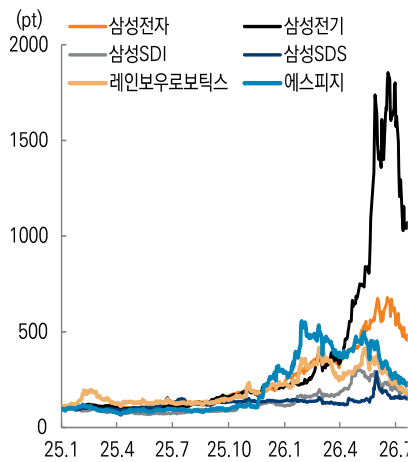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보다 실적 가시성에 따라 기업별 주가가 차별화될 전망이다. 향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공동 개발을 통한 휴머노이드 공개, 구미 사업장의 로봇 양산 체계 및 데이터 팩토리 구축, 완제품의 제조현장 투입 등이 주요 마일스톤으로 예상된다. 관련 로드맵이 구체화될수록 삼성그룹 공급망 진입 여부와 양산 납품 레퍼런스가 기업별 실적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며, 대기업형 납품 실적을 확보한 부품사의 매출 성장 가능성도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별 로봇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사업 총괄 조직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 신설(26.7)	로보틱스랩이 AVP 본부 산하로 재편(26.4)	LG전자 CEO 직속 로보틱스사업센터 출범(26.7)
핵심 계열사·투자	25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연결 자회사 편입 (지분 35% 확보)	보스턴다이나믹스, 소프트뱅크 잔여지분 9.65% 인수 추진	베어로보틱스 상용용. 지분 51% 확보·자회사 편입. 로보스타는 산업용, LG전자는 가정용 로봇 담당
주요 거점	서울 R&D캠퍼스에서 전략·핵심기술 개발, 경북 구미사업장에 로봇 데이터팩토리 구축.	미국 조지아주 HMGMA, RMAC에서 아틀라스 검증·학습. (26년 개소 예정) 전북 새만금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울 양재 데이터팩토리에서 LG 클로이드의 조작 데이터 생산하고 LG AI연구원·LG CNS 및 계열사와 연계. 미국 베어로보틱스와 연계
초기 적용 시장	삼성전자 제조·물류 현장에서 실증 후 산업용 B2B와 가정·리테일로 확대	현대차·기아 자동차 생산라인과 물류 현장을 우선 적용처로 활용	LG전자 생산라인과 식음료·호텔·물류 등 상업 공간에 우선 적용
전략적 특징	AI·반도체·가전과 로봇 HW의 결합	캠티브 제조현장을 활용한 대량 상용화	가정·상업·산업용을 포괄하는 종합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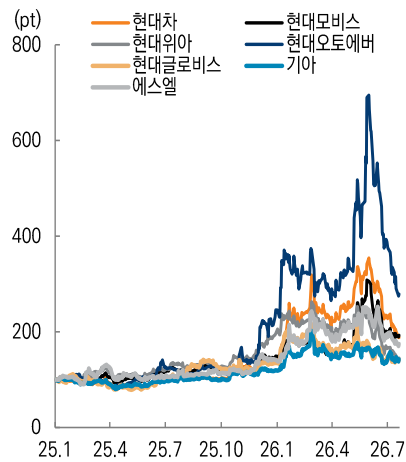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삼성 그룹 관련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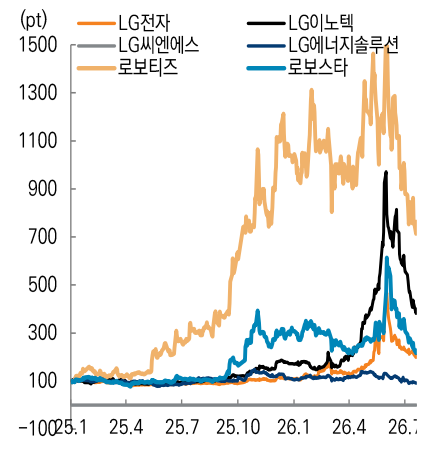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현대차 그룹 관련주 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LG 그룹 관련 관련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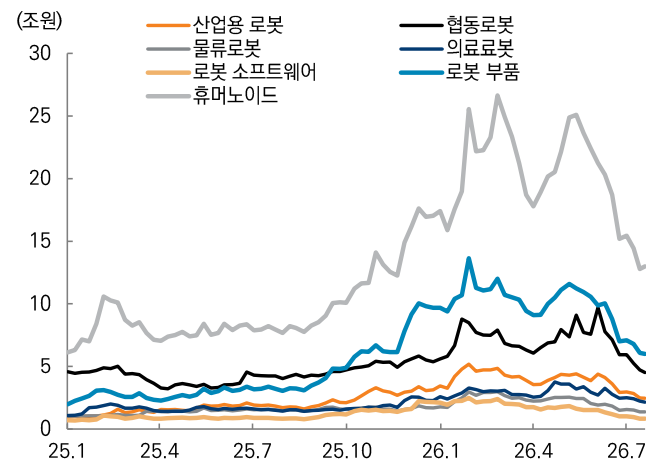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국내 주요 로봇 기업 시가총액 총합 추이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국내 로봇 기업 세부섹터별 시가총액 총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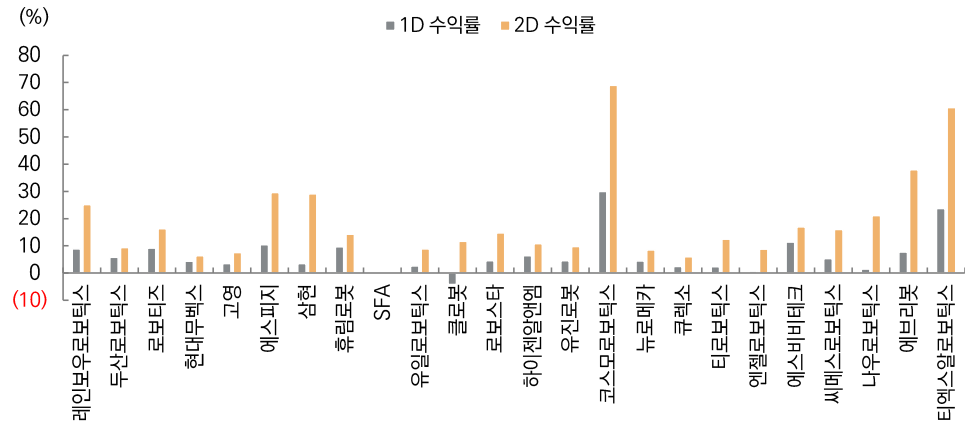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5. 2026년 하반기 주요 휴머노이드·Physical AI 이벤트

일정	이벤트	주요 관전 포인트
7/23	테슬라 2Q26 실적발표	Optimus 차세대 모델 개발, 전용 생산라인, 부품 설계, 테슬라 공장 내 투입 및 연간 생산목표 업데이트 여부
7/23	현대차 2Q26 실적발표	Boston Dynamics 실적, Atlas 개발·양산 준비 및 그룹 제조현장 실증 관련 업데이트 여부
7/30	삼성전자 2Q26 실적발표	RX사업추진실 출범 이후 로봇 사업전략,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협업, 제조현장 실증 및 추가 투자 관련 언급 여부
7월 말~8월 초	유니트리 과창판 상장	중국 휴머노이드 완제품 기업 첫 A주 상장
8/19~8/23	World Robot Conference 2026	하반기 최대 중국 로봇 이벤트, 3백여 개 기업, 2천여 개 전시품, 150개 이상 신제품 공개 예정.
8/26	현대차 2026 CEO Investor Day	Atlas 양산과 현대차그룹 공장 투입, Boston Dynamics 생산능력 확대, 투자 및 수익화 로드맵 제시 여부.
9/22~24	ROSCON Global 2026, 토론토	ROS 2, 실시간 제어, 시뮬레이션, 로봇 배포·운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행사
9/27~10/1	IROS 2026	VLA·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전신제어, 조작·로봇 손, Sim-to-Real 등 Physical AI 연구성과 발표
10/20~22	NVIDIA GTC Berlin	Isaac GR00T·Cosmos 등 NVIDIA Physical AI 플랫폼 업데이트, 로봇 기업과의 신규 협력 발표 가능성
11/4~11/7	2026 로보월드	삼성·현대차·LG 및 국내 로봇 기업의 제조·물류 실증 결과, 부품사 협업 공개 여부
11/9~11/23	CoRL 2026	로봇학습과 머신러닝 특화 학회. VLA, 범용 조작, 데이터 수집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술 방향 확인
12/1~2	Humanoids Summit Silicon Valley	미국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의 양산·고객사·자금조달 및 부품 공급망 발표 가능성 (Humanoids Summit)
12/7~9	IEEE Humanoids 2026	휴머노이드 전용 대표 학회. 보행·전신제어·손 조작·촉각·인간-로봇 상호작용과 제어 기술의 최신 성과 발표
4분기 예상	어질리티 로보틱스 SPAC 합병 상장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 최초의 공개시장 진입 사례

자료: 언론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삼성전자 조직개편 발표 후 국내 로봇 기업 수익률



주: 7/22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6. 국내 로봇 기업 기간별 수익률

Code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원)	수익률(%)							
			1D	2D	1W	1M	3M	6M	1Y	YTD
A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9,263	16.3	27.6	11.3	-16.5	-19.7	-4.5	77.6	1.7
A454910	두산로보틱스	4,382	5.8	9.4	-4.2	-32.7	-27.2	-41.4	10.3	-13.3
A108490	로보티즈	3,225	11.4	19.2	-1.3	-24.0	-20.5	-10.6	161.9	-15.9
A319400	현대무브스	2,197	4.4	6.4	-8.0	-35.9	-34.7	-57.4	307.6	5.0
A098460	고영	1,807	3.5	7.5	-6.7	-20.3	-19.9	-8.8	78.7	15.7
A058610	에스피지	1,827	25.2	31.9	17.0	-4.4	-28.9	-21.9	214.1	1.6
A437730	삼현	1,118	24.7	31.8	11.3	-16.5	-34.4	-47.5	178.8	-36.5
A090710	휴믹로봇	825	9.7	14.2	-0.3	-28.0	-37.9	-67.9	126.2	-7.4
A056190	SFA	720	0.4	1.4	-8.4	-22.3	-36.5	-23.8	-18.5	-14.3
A388720	유일로보틱스	749	6.7	10.6	0.8	-16.9	-35.0	-33.1	-12.9	-23.6
A466100	클로봇	659	7.7	14.9	-0.2	-24.2	-48.2	-64.3	26.3	-60.2
A090360	로보스타	645	12.4	17.6	-1.2	-32.9	2.0	-22.7	139.0	-17.4
A160190	하이젠알앤엠	490	6.4	10.8	-3.1	-34.6	-61.9	-77.1	-54.5	-73.4
A056080	유진로봇	475	4.5	9.7	-1.4	-26.5	-49.9	-65.7	16.1	-13.8
A439960	코스모로보틱스	570	30.0	68.9	45.2	-14.3	-	-	-	-
A348340	뉴로메카	384	4.4	8.5	-3.6	-24.8	-54.7	-74.9	30.8	-7.1
A060280	큐렉스	330	2.4	6.0	-4.8	-17.4	-49.3	-57.1	-10.1	-38.3
A117730	티로보틱스	275	5.0	11.7	5.5	-16.1	-37.0	-53.9	6.5	-39.3
A455900	엔젤로보틱스	258	6.3	12.0	-1.2	-21.5	-41.3	-56.2	-28.0	-44.7
A389500	에스비비테크	228	11.4	16.9	1.0	-28.6	-45.2	-54.6	68.5	-5.4
A475400	씨메스로보틱스	198	9.9	16.9	4.6	-19.7	-47.6	-58.1	-26.8	-49.5
A459510	나우로보틱스	178	3.7	20.7	6.3	-15.3	-40.1	-59.3	-27.9	-36.3
A270660	에브리봇	172	8.6	41.1	28.1	6.5	-23.6	-48.6	-20.4	-40.9
A484810	티엑스알로보틱스	194	29.9	60.8	47.9	7.9	-26.0	-48.9	-9.6	-20.7

주: 7/22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